

전남도 축산인, 환경보전 실천결의대회 개최

-본회 전남도협의회, 축산분뇨 퇴비화통해 축산환경 보존 결의-

-홍보부-



▲ 광주·전남도 양축가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

광주·전남지역 양축가들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생활화하기로 결의하는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5일 축협전남도지회 2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축협운영협의회 주최로 열린 「축산인 환경보전 실천 결의대회」에서는 광주·전남도지역 양축가 및 관계자 300여명이 모여 축산내외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방지와 가축분뇨처리 관계 법률에서 정한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안명수 축협운영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가축분뇨 방류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어 앞으로 우리 양축농가는 가축분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을 더이상 경영할 수 없는 실정”



▲ 환경보호를 생활화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양축가들

이라고 밝히고 “양축인은 환경보전형 축산으로 해야한다는 당연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단속일변도가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 최희태 전남도협의회장(중앙)은 분노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보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결의대회에서 앞서 본회 기정도 부회장, 전재명 이사, 최희태 도협의회장 및 전남도 각 지부장들은 환경보전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1·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안명수 축협운영협의회장 인사말에 이어 민원배 전남도 지회장과 김태철 광주 지방검찰청 검사의 격려사를 듣고 광주·전남지역 10만 양축가가 환경보전 실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1부 행사를 마쳤다.

2부에서는 문용운 광주광역시 수질보존계장이 축산업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광주 하수종말 처리장인 환경사업소를 견학하여 참석한 양축가들 모두가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대한양돈협회 전남도협의회(회장: 최희태)는 「축산인 환경보전 실천 결의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회의를 열고 이번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 환경보전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전남도협의회는 축산업 환경보전 실천 결의대회에서 축산분뇨의 퇴비화를 통해 축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한편, 전남도 양돈인들이 자정운동을 하여 분뇨처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결 의 문

광주·전남축협운영협의회소속조합원 및 양축가 일동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을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운동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지금 나 자신부터 환경보호를 시작해야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환경보호를 생활화 실천한다.
2. 우리는 환경문제가 공동의 책임임을 명심하고 가족친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축사내·외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에 적합한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앞장선다.
4. 우리는 축산정화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가동되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설점검에 앞장선다.

1996. 9. 5

광주·전남지역 10만 양축가